

2024
이감 **인사이트**

insight

2025학년도
성공적인 수능을 위한
이감의 **6모** 분석자료집

I

주요 데이터 분석

등급컷 / 오답률 TOP 10

[등급컷 분석]

등급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수능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진학사
1	98/93	88/84	85/83	88/85	86/84
2	91/87	81/77	76/75	80/77	78/75
3	83/79	72/69	69/68	71/68	70/68
4	73/69	62/59	60/59	62/58	60/57
5	60/57	52/49	49/48	49/46	48/45
6	47/44	42/39	38/37	35/32	35/32
7	29/27	32/29	27/25	22/19	25/22
8	20/18	22/20	20/19	17/14	18/16

※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 01** 데이터만 놓고 보자면 작년 6월 모의평가는 물론 그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작년 수능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난도를 보았을 때는 작년 수능보다는 분명히 쉬운 시험이었다. 이러한 간극은, 첫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심리 상태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전 감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 수험생들이 국어 영역 학습에 시간과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투자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02** 작년 수능을 한마디로 '무난한 독서, 어려운 문학'으로 평가한다면, 이번 시험은 '어려운 독서, 무난한 문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년 수능에서 독서 영역이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독서 영역 학습을 소홀히 한 수험생이 많았는데, 한 차례의 수능이 향후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험은 하나의 경험일 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에게 적합한 시험 운용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시험의 난도가 앞으로로도 지속되어 다음 9월 모의평가나 최종적으로 올해 수능에서도 '어려운 독서, 무난한 문학'의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03 이전 시험들에 비해 선택과목 간의 격차가 작은 편인데, 이는 화법과 작문에 언어와 매체의 고난도 언어 문항에 버금가는 난도의 문항이 일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화법과 작문은 상대적으로 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난도를 높인데, 이번 시험에는 특히 마지막 세트에 그러한 문항들이 집중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실전 경험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웠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은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언어와 매체는 기본적인 언어 지식과 이에 대한 적용 능력이 필수적이다. 평가원은 선택과목의 보정 절차를 만들어 특별히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화법과 작문을 마냥 선호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해당 과목의 학습에 매진하기 바란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화법과 작문]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6	독서	3	78%	①	22%	12%	21%	29%	17%
2위	9	독서	2	76%	①	24%	36%	14%	15%	11%
3위	15	독서	2	73%	①	27%	16%	18%	24%	15%
4위	45	화작	3	68%	②	7%	32%	10%	8%	43%
5위	34	문학	3	65%	③	13%	16%	35%	28%	8%
6위	13	독서	2	63%	⑤	11%	11%	21%	21%	37%
7위	7	독서	3	61%	①	39%	7%	27%	12%	16%
8위	42	화작	2	57%	②	3%	43%	13%	40%	3%
9위	12	독서	2	56%	④	11%	7%	15%	44%	22%
10위	29	문학	2	55%	④	14%	9%	15%	45%	16%

독서 6

문학 2

화작 2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6문항, 문학 2문항, 화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수능의 오답률 TOP 10이 독서 4문항, 문학 4문항, 화작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독서와 문학에서 모두 변별력을 확보하되 상대적으로 독서 영역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평가원에서 독서와 문학 중 어떤 영역에 조금 더 힘을 줄지는 매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학만 어려운 시험’이나 ‘독서만 어려운 시험’은 의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자.

02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4문항[→ 12, 13, 15, 16번], 과학·기술 지문에서 1문항[→ 9번], 사회 지문에서 1문항[→ 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7, 16번이 전통적으로 난도가 높은 <보기> 문항인 데 비해, 나머지 9, 12, 13, 15번은 핵심 개념·관점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문항이라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그중 12, 13, 15번의 경우 지문의 초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정답을 쉽게 도출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9번은 화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인문계 수험생들에게 특히나 까다로웠을 문항이다. 다만 지문의 설명을 도식이나 그림 등으로 처리하며 읽어 나가는 태도는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의 지문 분석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기에, 지문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채 문제를 틀렸다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놓쳤는지 등을 충분한 반복 훈련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이번 독서 영역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점은 작년 수능에 이어 어쨌든 평가원에서는 ‘쉬운 지문’ 하나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회 지문이다.]. 이러한 출제 기조는 시험 운용의 측면에서 분명히 참고해야 한다. 난도가 낮은 세트에서 확실하게 시간을 절약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시험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03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시 1문항[→ 34번], 현대소설 1문항[→ 29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갈래 복합 세트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고[→ 갈래 복합에 포함된 고전수필 역시 작년 수능과 달리 까다로운 작품이 아니었다.], EBS 연계율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시험 운용 면에서 수월했을 것이며, 그 결과가 오답률 TOP 10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한편,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감상자로서의 태도를 묻지 않은 다른 문항들에 비해 34번은 상대적으로 가장 문학다운 문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오답률이 높았다. ‘어려운 문학’이 강조된 작년 수능 이후에 수험생들이 EBS 연계 작품 분석에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도 선지 진술과 작품 내용을 어떻게 비교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지 등 보다 본질적으로 수능 문학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04 작년 수능을 기점으로 오답률 TOP 10에 화법과 작문 영역의 문항들이 상위권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오답률이 40% 이하였다면, 작년 수능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오른 두 문항의 오답률이 모두 65%였다.].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서는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더욱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조는 선택과목이 폐지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언어와 매체]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36	언매	3	73%	⑤	13%	28%	9%	23%	27%
2위	16	독서	3	69%	①	31%	11%	18%	22%	17%
3위	9	독서	2	66%	①	34%	33%	12%	11%	10%
4위	15	독서	2	65%	①	35%	15%	15%	20%	15%
5위	34	문학	3	58%	③	13%	14%	42%	25%	6%
6위	37	언매	2	53%	①	47%	9%	14%	26%	4%
7위	13	독서	2	52%	⑤	8%	8%	21%	15%	48%
8위	7	독서	3	51%	①	49%	5%	20%	9%	18%
9위	29	문학	2	45%	④	12%	9%	13%	55%	11%
10위	12	독서	2	40%	④	7%	4%	10%	60%	20%

독서	6	문학	2	언매	2
----	---	----	---	----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6문항, 문학 2문항, 언매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수능의 오답률 TOP 10이 독서 3문항, 문학 5문항, 언매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독서와 문학에서 모두 변별력을 확보하되 상대적으로 독서 영역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평가원에서 독서와 문학 중 어떤 영역에 조금 더 힘을 줄지는 매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학만 어려운 시험’이나 ‘독서만 어려운 시험’은 의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자.

02 작년 수능에서도 오답률 2, 3위가 언어 문항이었는데(→ 오답률 각각 61%, 60%),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언어 문항이 오답률 1, 6위를 차지했다(→ 오답률 각각 73, 53%). 언어 영역에서 익숙한 개념을 낫설고 까다로운 방식으로 출제하는 기존의 경향은 이번에도 나타났다. 가령 [35~36]에서 다른 호칭어의 개념은 비교적 낫설었겠지만, 각 선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품사와 파생어 등의 개념 자체는 매우 익숙한 것들이었다. 특히나 이번 시험에는 그 자체로 낫설고 판단이 까다로운 문항들도 등장하여 수험생들을 버겁게 했다. 37번 문항의 ‘서술어의 자릿수와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단순히 문법 지식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39번 문항의 ‘차자 표기’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고대 국어 영역 중에서도 매우 낫선 주제라는 점에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언어 영역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 그에 대해 대비할 텐데, 이때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낫선 주제의 낫선 문항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03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4문항[→ 12, 13, 15, 16번], 과학·기술 지문에서 1문항[→ 9번], 사회 지문에서 1문항[→ 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7, 16번이 전통적으로 난도가 높은 <보기> 문항인 데 비해, 나머지 9, 12, 13, 15번은 핵심 개념·관점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문항이라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그중 12, 13, 15번의 경우 지문의 초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정답을 쉽게 도출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9번은 화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인문계 수험생들에게 특히나 까다로웠을 문항이다. 다만 지문의 설명을 도식이나 그림 등으로 처리하며 읽어 나가는 태도는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의 지문 분석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기에, 지문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채 문제를 틀렸다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놓쳤는지 등을 충분한 반복 훈련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이번 독서 영역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점은 작년 수능에 이어 어쨌든 평가원에서는 ‘쉬운 지문’ 하나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회 지문이다.]. 이러한 출제 기조는 시험 운용의 측면에서 분명히 참고해야 한다. 난도가 낮은 세트에서 확실하게 시간을 절약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시험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04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시 1문항[→ 34번], 현대소설 1문항[→ 29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갈래 복합 세트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고[→ 갈래 복합에 포함된 고전수필 역시 작년 수능과 달리 까다로운 작품이 아니었다.], EBS 연계율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시험 운용 면에서 수월했을 것이며, 그 결과가 오답률 TOP 10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한편,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감상자로서의 태도를 묻지 않은 다른 문항들에 비해 34번은 상대적으로 가장 문학다운 문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오답률이 높았다. ‘어려운 문학’이 강조된 작년 수능 이후에 수험생들이 EBS 연계 작품 분석에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도 선지 진술과 작품 내용을 어떻게 비교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지 등 보다 본질적으로 수능 문학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II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전체적인 난도는 시험의 운영 측면에서는 적정했지만,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먹는 까다로운 문항이 일부 포진되어 있었다. 작년 수능의 경우 모든 지문이 짧고 쉬우며 문항도 무난한 난도로 출제되었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그에 비해 지문들이 비교적 길었고 각 세트마다 까다로운 문항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주제통합형 세트는 지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항도 제대로 풀기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해당 세트의 [지문 분석]의 연계 양상에서도 언급하겠지만, EBS 연계 학습의 방향도 어느 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번 시험이 올해 수능의 경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취할 점은 취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지문 평가

- 이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독서론 1개, 주제통합형 지문 1개, 단일 지문 2개가 출제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단일 지문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분량이 더 짧은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두 지문 모두 시험지 한 단을 전부 차지하는 분량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주제통합형 지문의 분량도 이전에 비해 늘어나, 전반적으로 독해 부담이 늘었을 것이다.
- 독서론[→ 1~3번]은 이번에도 변별력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쉽게 출제되었다. 다만 3번 문항에 주어진 제시문의 분량 증가로 판단 지점이 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답 선지의 선명도가 높아, 확신을 갖고 정답 하나만 고른다는 자세를 유지했다면 시간을 소모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 사회 지문[→ 4~7번]은 수능특강 286쪽의 ‘과두제의 철칙’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다만 EBS 지문이 정치학 분야에서 ‘과두제’를 설명한 데 비해, 해당 지문은 이를 경영학 분야로 끌고 와서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다루었다. EBS 지문의 핵심 개념소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맥락이 전혀 달라졌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도는 낮았을 것이다. 7번 문항을 제외하면 지문과 문항 모두 평이해서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 과학·기술 지문[→ 8~11번]은 수능특강 307쪽의 ‘생체 내의 화학 결합과 창발성’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EBS 지문의 부수 개념소인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을 활용하여 화학 공학 분야의 주제인 ‘에틸렌의 중합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감 간쓸개 지문에서도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을 화학 공학의 분야에서 수차례 다루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었을 것이다. 다만, 이 역시 다른 분야로의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도는 비교적 낮았을 것이다. 10번이 <보기> 문항임에도 지나치게 평이했으며, 오히려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9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 12~17번]은 수능특강 283쪽의 ‘직관주의와 정의주의’를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해당 지문은 EBS 지문의 핵심 개념소인 ‘에이어의 정의주의’를 (가)에 그대로 활용하였고, 그에 대하여 논리학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에서 소개하였다. (나)의 내용이 EBS 지문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 개념소가 그대로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밀도가 상당히 높고, 대부분의 문항이 지문 내용을 조금이라도 장악하지 못했다면 풀 수 없도록 설계되어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었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모든 문항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이감 모의고사 시즌3 3차에서 동일하게 ‘에이어의 정의주의’에 대한 논리학에서의 문제 제기를 다루었고, 16번 <보기> 문항에 등장하는 새로운 관점[→ ‘블랙번’의 논리] 역시 다루었으므로, 이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문항 평가

- 오답률 TOP 10 문항 중에 독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에서 6개이다. 작년 수능에서는 각각 4개와 3개였다는 점에서 독서 영역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시험에서는 통상 7~8개의 독서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적정 난도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는 <보기> 문항을 포함한 모든 문항이 단순 내용 일치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며, 작년 수능에서와 달리 단일 지문임에도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비교적 수월했다. 다만 7번 문항의 경우, 수험생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상당히 고려해야 했기에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복잡해졌을 수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
- 과학·기술은 앞서 기술한 대로 9번 문항이 복병이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이공계 수험생이라면 에틸렌의 중합 과정을 이해하거나 도식으로 정리하는 데 무리가 없었겠지만, 인문계 수험생에게는 문단3, 4의 설명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묻는 9번 문항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것이다. 해당 문제는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지만, 이번 시험을 계기로 페이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기기 바란다. 해당 문항이 2점에 불과한 만큼, 본인이 정한 적정 풀이 시간보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당장의 2점 때문에 남은 모든 문제, 나아가 시험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은 문항들의 오답률이 전체적으로 높다. 지문 내용이 어렵기도 했지만,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는]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항 없이 지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풀 수 없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주제통합형 지문에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그 대신 12번과 같은 내용 일치 문항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02. 지문 분석

[4~7] (사회) 과두제적 경영

주목해야 할 지문(2025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C

- 정치 조직에서 나타나는 ‘과두제’가 기업 경영에서 나타났을 때의 장단점을 단순히 나열한 지문이다. 정보의 밀도도 매우 낮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언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지점이 없는 평이한 지문이다. 7번 문항의 <보기>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두제적 경영’을 지문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분명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이 점에 유의하여 독해했다면 그다지 헤맬 대목은 없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286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과두제’가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그러나 영역 간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도는 낮았을 것이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아니었고, 지문 자체가 어렵지도 않았다.



고난도 문항 해설 7번

❖ <보기> 설명

- 1)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 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
 - ➔ 주주들이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된다는 것은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룬다는 뜻이다. 즉, X사의 경영 방식은 ‘공동체적 경영’에 해당한다[문단2].
- 2)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 ➔ 그러나 이후에 X사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전환되었다[문단2].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경영 방식이 전환된 것이다.

맥락 짚기 여기까지의 진술은 문단2까지의 흐름에 그대로 대응된다. 하지만 <보기> 문항임을 고려하면 지문의 내용이 완전히 그대로 대응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번 시험의 10번 문항처럼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지문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상황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식하며 이어지는 정보들을 처리해 나가자.

- 3)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주목 X사는 과두제적 경영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가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문단3]. 그런데 X사의 경우 전체 주주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정보와 권한이 독점되지 않는다. 이는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의 절충안인 제3의 경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 4) A: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A는 X사의 경영을 현재와 같은 절충안이 아닌, '과두제적 경영'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진의 구성원이 고정되고 주요 사항도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권한과 정보가 현재에 비해 독점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 5) B: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 반면 B는 현재의 경영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정답 설명: ①

- 1) X사는 현재 '공동체적 경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두제적 경영'도 아닌, '절충안'에 해당하는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보기>-3)]. 이 경영 방식은 정보와 권한이 독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한 편이다.
- 2) 이는 즉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설명

- ② X사는 현재 과두제적 경영과는 달리,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경영 이익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보기>-3)]. 그러므로 소수에게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는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맞지만,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는 과두제적 경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이다[<보기>-4)].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과두제적 경영으로 전환해야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현행대로'의 경영 방식이 아니다. 현재 X사가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강한 결속력'은 과두제적 경영의 특징에 해당한다[문단3].
- ④ B는 애초에 경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보기>-5)].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⑤ X사는 현재 '과두제적 경영'이 아닌, 과두제적 경영과 공동체적 경영의 절충안에 해당하는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보기>-3)]. 즉, A와 B는 현재 X사가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8~11] (과학·기술) 에틸렌의 중합 과정

주목해야 할 지문(2025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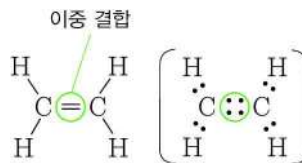
- 플라스틱이 '중합'을 통해 만들어짐을 설명하고 그 예시로 '에틸렌의 중합 과정'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과학·기술 지문이다. 문단2와 문단4에 대부분의 정보가 편중되어 있는데, 특히 문단2에서 언급한 화학적 규칙[→ 옥텟 규칙]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문단4에 제시되는 중합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307쪽에서 다룬 부수 개념소인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 해당 지문에서도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관련 개념을 간썰개 지문에서 충분히 다룬 만큼, 연계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들은 그렇게까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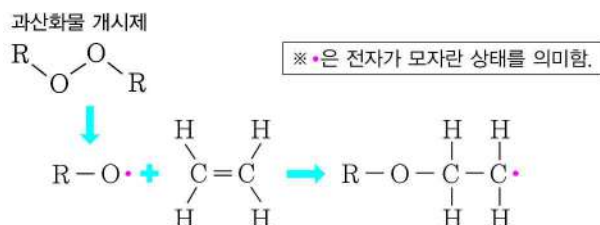
고난도 문항 해설 9번

정답 설명: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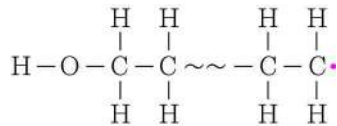
- ①[→ 에틸렌의 중합 과정]은 과산화물 개시제에 의해 생성된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 일으키는 연쇄적인 작용이다. 에틸렌을 구성하는 두 개의 탄소 원자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데[문단3], 이는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문단2].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가며 이해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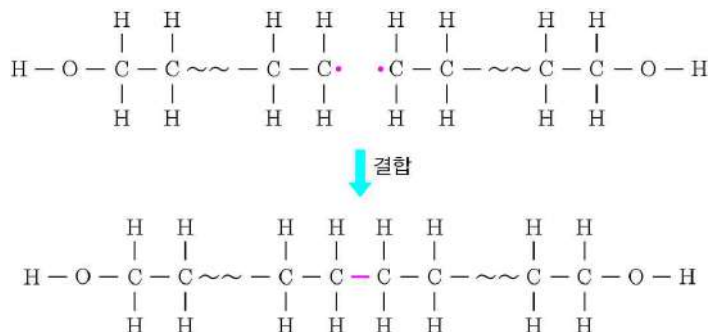
- 그런데 이중 결합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 세기가 약해서,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에 의해 끊어질 수 있다. 과산화물 개시제에서 만들어진 분자의 불안정한 원자가 보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화를 이루기에 부족한 전자 1개를 공유받기 위해서] 에틸렌의 두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 중 하나를 끊고, 한쪽 탄소 원자와 단일 결합하여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다른 쪽 탄소 원자[→ 이중 결합 중 하나가 끊어진 이후에 과산화물 개시제와 전자를 공유하지 못한 탄소 원자]는 전자 하나가 모자라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 3)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마찬가지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된다. 이때의 ‘반응’이란 또 다른 에틸렌 분자의 탄소 원자들 간의 이중 결합 중 하나를 끊고 대신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반응은 연쇄적으로 또 다른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 즉, 작은 분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거대 분자가 사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단2, 4].



- 4)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사슬의 끝에는 3)의 그림과 같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끝에 있는 탄소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틸렌 분자의 탄소 원자들 간의 이중 결합 중 하나를 끊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 또다시 불안정한 탄소 원자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5) 이렇게 성장하던 사슬은 언젠가는 다른 사슬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두 사슬의 끝[→ 각각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있음]이 만나 결합하게 되면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반복적인 반응은 멈추게 된다. 즉, 각 사슬 끝의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단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다.



- 6) 즉, 성장 중인 사슬은 그 한쪽 끝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사슬의 양쪽 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7)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최적 경로 문단4에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해당 선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바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지문의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이라는 진술을 사슬 하나의 양쪽 끝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있고, 그 양쪽 끝이 원형을 이루듯 서로 만난 것이라고 오독했다면 헷갈렸을 수 있다. 지문에서 줄곧 사슬 한 개의 성장을 설명하다 보니 ‘두 사슬’이라는 표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에 상황을 묘사하는 설명이 이어질 때에는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떠올리기보다 간단한 형태로라도 그림을 그리며 읽어 나가도록 하자.

❖ 오답 설명

- ② 사슬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슬의 한쪽 끝이 아닌 중간에서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다른 에틸렌 분자를 이루는 탄소 원자들 간의 이중 결합을 깨고, 그 탄소 원자들 중 하나와 대신 전자를 한 쌍 공유하는 결합이 이어진다[정답 설명-3]. 곧, 사슬의 중간에는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단일 결합이 존재한다.
- ③ 일단 처음에 과산화물 개시제에 의해 에틸렌 분자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 [→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다른 에틸렌 분자의 탄소 원자들 간의 이중 결합을 끊고 대신 결합하는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계속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슬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정답 설명-2)~4)].
- ④ 사슬의 성장 과정에서 그 한쪽 끝에는 반드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하나 존재한다[정답 설명-4)]. 그렇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 사슬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하나의 사슬이 다른 사슬과 만나 [각 사슬의 한쪽 끝에 있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끼리 단일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성된다[정답 설명-5)].
- ⑤ 사슬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한쪽 끝이 아닌 중간에서는 ‘다른 에틸렌 분자’의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에틸렌 분자의 탄소 원자들 간의 이중 결합 중 하나를 끊고 그중 하나의 탄소 원자와 대신 단일 결합을 하는 과정[→ 에틸렌 분자가 사슬에 새롭게 결합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정답 설명-3)]. 즉,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본래 존재하던 ‘이중 결합’이 끊어지고 ‘단일 결합’으로 바뀌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슬이 성장한다.

[12~17] (인문-인문) 에이어의 정의주의에 대한 비판

주목해야 할 지문(2025학년도 6모 대비) : 중요도 AA

- (가)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참, 거짓과 같은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에이어’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주장 자체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지문이 ‘분석적 문장 - 종합적 문장’, ‘표현적 용법 - 기술적 용법’과 같이 대립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가)에서 이미 상당한 집중력을 소모했을 것이다. (나)는 에이어의 주장에 대한 ‘몇몇 논리학자들’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헝크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복잡한 내용을 단 두 문단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보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해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필연적으로 분석 철학을 주제로 하는 지문들은 논지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밀도 있는 까다로운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 평소에도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를 풀 때에도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일차적으로는 적어도 각 선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읽어 내는 것을 목표로, 이차적으로는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찬찬히 읽어 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훈련하자.

- 연계 양상: 수능특강 283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에이어의 정의주의'가 해당 지문의 (가)에서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EBS 지문에 수록된 내용인 '에이어'의 주장은 물론, EBS 지문에 수록되지 않은 '에이어의 주장에 대한 논리학자들의 비판', 그리고 16번 문항의 <보기>에 제시된 또 다른 견해[→ '블랙번'의 논리]까지 전부 이감 모의고사에서 충실히 다루었기에 이를 제대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16번

❖ <보기> 설명

- 1)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맥락 짚기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라는 발문을 고려하면, 지문에서 다룬 '에이어', '헝크스'의 관점과 <보기>의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관건이다.

- ➔ 에이어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가)의 문단3].
- ➔ <보기>의 관점에서도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한다고 본다. 진술한 도덕 문장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문장에는 참, 거짓이 없다고 본다.
- ➔ <보기>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에이어 역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가)의 문단1].
- ➔ 특기할 점은 '도덕 문장을 포함한 조건문'에 대한 해석이다. (나)의 문단1에 제시된 몇몇 논리학자들은 전건 긍정식[→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인 'Q이다.'의 참이 보장되는 식]과 관련하여, 도덕 문장인 P가 조건문[→ P이면 Q이다.] 안에서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본다. 즉, 두 전제 중 'P이면 Q이다.'에서는 도덕 문장인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않는데, 'P이다.'에서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여 둘 사이에 내용 차이가 발생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주목 반면 <보기>에서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을 '태도에 대한 태도'로 표현하였다. 쉽게 말해 조건문을 '태도'로 본다는 것이다. 곧, (나)의 문단1에서 몇몇 논리학자들이 조건문 'P이면 Q이다.'에서 P는 태도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반해, <보기>에서는 여전히 태도를 표현한다고 본다.

- 2)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밀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보기>의 관점에서 전건 긍정식이 왜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는 여전히 조건문에서 전건 P[→ '자선은 옳다.']가 태도를 표현한다고 본다.

주목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P이면 Q이다.]'라는 '태도에 대한 태도'와 '자선은 옳다.[→ P이다.]'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봉사는 옳다.[→ Q이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즉, 두 전제[→ 'P이면 Q이다.', 'P이다.']로부터 여전히 결론[→ Q이다.]이 논리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전건 긍정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정답 설명: ①

- 1)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에이어의 주장에 해당한다[(가)의 문단3].
- 2) <보기>에서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다[<보기>-1)].
- 3) 즉, 에이어의 주장과 <보기>의 주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경로 이탈 <보기>에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가 아닌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이를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고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의 조건문에는 애초에 '자선은 옳다.'와 '봉사는 옳다.'라는 두 도덕 문장, 즉 두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애초에 도덕 문장을 태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둘을 포함한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일 수 있었던 것이다.

❖ 오답 설명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나)의 문단1에 제시된 '몇몇 논리학자들'의 주장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건 긍정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전건 긍정식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보기>는 두 전제가 나타내는 태도가 결론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견해로[(가)의 문단1], 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곧 도덕 문장의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주장이다. 반면 <보기>에서는 도덕 문장이 그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보기>-1)]. 따라서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굴은 맛있다.'가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 화자의 선호와 같은 감정[→ 주관적 태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선은 옳다.'라는 도덕 문장이 그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즉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굴은 맛있다.'가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경로 이탈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것과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것이 표면상 다른 의미로 보이지만, 지문의 맥락상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특히 지문에서 도덕 문장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고 하였고[(가)의 문단3], 화자의 선호 역시 '감정'으로 주어졌음을 고려한다면[(나)의 문단1], 두 표현을 엄격히 구분하여 별개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독해이다.

- ⑤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이 없다는 주장은 에이어의 견해에 해당한다[(가)의 문단3]. <보기>에서도 도덕 문장이 화자의 찬성이나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하므로 참과 거짓이 없다고 주장한다[<보기>-1)]. 따라서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공통과목 : 문학

01. 출제 경향

▶ 총평

어려운 편이었다. 최고난도를 보였던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 문학 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자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작년 9월 모의평가에서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9월 모의평가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도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 시험은 그 정도 난도의 쉬운 문항이 거의 없었다. 정답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을 들여 지문을 꼼꼼히 읽고 선지를 세세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 출제 작품

세부 영역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고전소설	4	작자 미상, 「이대봉전」	수능특강 139쪽
고전시가 + 수필	5	작자 미상, 「우부가」	수능특강 71쪽
		성현, 「타농설」	비연계
현대소설	4	임철우, 「아버지의 땅」	수능특강 292쪽
현대시	4	이기철, 「청산행」	수능특강 265쪽
		김현승,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비연계

▶ 연계 평가

- 전체 6작품 중 수능특강에서 연계된 작품이 4개로 50%를 훨씬 넘는 연계율을 보였다. 게다가 연계된 4작품 중 3작품은 EBS 교재의 수록 부분과 지문이 거의 겹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요소도 EBS 교재에서 다룬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 때문에 연계 학습을 꼼꼼히 한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율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BS 교재의 <보기> 문항에서 다루었던 내용 요소를 활용한 문항들도 눈에 띄고 있어 연계 학습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산문 갈래의 경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중 한 작품만 연계하던 기존의 출제 기조와 달리, 두 작품 모두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특히 현대소설은 지문의 3/4 이상이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 일치하였다.

- 시가 갈래의 경우 현대시는 연계 1작품과 비연계 1작품을 짝 지어 제시하는 기존의 출제 방식이 유지되었으나, 고전시가는 작년 수능에 이어 연계 작품만으로 가사 1작품이 출제되었다. 고전시가에서 특기할 점은 예년과 달리 지문 전체가 EBS 교재의 수록 부분과 겹치고, EBS 교재에서보다 어휘 풀이를 적게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계 학습을 한 수험생과 하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체감 난이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이번에도 극 대신 수필이 출제되었다. 갈래 복합 지문에서 고전시가에 비해 고전수필의 길이가 훨씬 길어, 분량으로만 보면 고전시가 감상보다 수필 독해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출제한 듯한 인상을 준다.

02. 작품 분석

[18~21] (고전소설) 작가 미상, 「이대봉전」

주목해야 할 작품(2025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A

- 특이한 구성의 지문이었다. 서사의 진행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었던 서사가 집약된 3편의 글을 중심으로 지문을 구성하였다. 이는 이전에 출제된 적이 없는 형태의 지문 구성으로, 사건성을 중시하는 서사 갈래의 특성을 존중한 출제라기보다 주어진 지문을 얼마나 잘 독해하였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18번 문항의 경우 일견 작품 속 공간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록 지문에는 구체적인 공간도 공간성도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서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내용 일치 문제이다.
- 3편의 글에 주어진 정보들을 재구성해야 서사가 온전히 이해되는 지문이라, 빠르게 한 번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정답 선지가 선명하여 오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풀이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0번 문항은 수능이 ‘국어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으로 시행되던, 아주 오래전에 출제되었던 유형의 문제이다. 오답 선지 중 ④번이 전체 서사를 재구성해서 판단해야 하는 핵심 선지인데, 선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핵심 서사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2~26] (고전시가·수필) (가) 작가 미상, 「우부가」 / (나) 성현, 「타농설」

주목해야 할 작품(2025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C

- 이전까지는 대체로 갈래 복합 세트의 난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해당 세트의 난도가 가장 낮았다. 고전시가를 두 작품이 아닌 한 작품만으로 출제할 경우 그 내용과 표현 면에서 모두 밀도가 높은 작품을 제시하는데, 「우부가」는 이런 기조에서 벗어난 다소 의외의 출제라 할 수 있다. 해당 작품은 열거법 외에 표현상 특징으로 다룰 만한 요소가 없는, 시가이지만 서사 전개가 중심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편, 22번 문항의 정답이 열거법에서 도출되었는데, 이 역시 EBS 교재의 <보기> 문항에서 다루었던 내용 요소이다. 문학 영역의 전체 문항 중에서 갈래 복합 세트의 문항들이 가장 평이한 수준을 보였다.

-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출제되었던 고전수필은 지나치게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에 출제된 고전수필은 분량만 많을 뿐 상대적으로 쉽게 읽히는 작품이었다. 다만, 이 정도의 수필 문항의 정답률도 7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작년 9월 모의평가나 수능과 같이 난도 높은 수필을 출제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7~30] (현대소설) 임철우, 「아버지의 땅」

주목해야 할 작품(2025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A

- 지문의 대부분이 EBS 교재의 수록 부분과 겹칠 뿐만 아니라, 기존 모의평가 등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문학 오답률 2위와 3위가 현대소설 세트에서 나왔다.
- 지문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이 작품이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이념적 갈등이 낳은 상처를 다룬 것이라는 기본 정보를 지문에서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아주 희미하게, 역사를 잘 아는 사람만이 읽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진술만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번 문항의 ⑤번 선지에서는 ‘이념’ 요소를 다루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30번 문항의 <보기> 내용이 작품 해제나 문학 개념이 아니라 심리 요법상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BS 교재의 <보기> 문항에서는 이 작품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심리 요법 측면에서 변용한 것이 이 <보기> 문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항 해설 27번

정답 설명: ②

- ① ㉠의 첫 문장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에서 ‘나’라는 표지를 통해 서술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어지는 나머지 문장에 제시된, ‘초겨울의 아산’과 ‘사위’의 ‘풍경’을 지각하고 ‘현기증’이 일었던 주체 역시 ‘나’이다.
- ③ 곧, ㉠의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는 ‘나’로 동일하다.
- ④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설명

- ① ㉠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죄’에 대해 들은 후 ‘나’가 느낀 감정과 그로 인한 ‘나’의 성격 변화를 서술한 부분이다. 곧, ㉠의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이므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 이전의 상황을 정리하면, ‘나’는 유해를 수습하는 노인을 보며 집 떠난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를 떠올리다 어머니의 뒤를 쫓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게 된다. ㉠은 그 ‘사내’가 어머니가 숨겨 놓은 ‘액자 속’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서술이다. 이때 ㉠의 주어 ‘그것(= 그것들)’은 ‘나’가 지각하는 대상인 ‘사내의 환영’이다. 이렇게 ‘그것 = 사내의 환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내의 환영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㉔은 방언이 사용된 구어체의 서술이며, 이어지는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를 통해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어머니의 발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⑤ ㉔에는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아가 부엌에 흐려’진 인물이 ‘나’인지 아니면 ‘철삿줄을 동여맨 채’ 총에 맞아 쓰러진 사내[→ 수습했던 유해의 모습을 한 아버지]인지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㉔ 자체에는 지각의 주체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문맥적 이해를 통해 ㉔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는 있다. 때문에 이 선지를 오답으로 골라내는 데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해당 선지의 높은 선택률로 드러났다.



고난도 문항 해설 29번

정답 설명 : ④

- 1) ‘나’는 ‘하얀 물 사발’을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를 통해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 놓고 집 떠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나’의 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빌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은, 철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철새처럼 아버지도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어머니의 믿음 혹은 간절한 바람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㉔[→ ‘날짐승’]은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2) 한편, ‘나’는 총을 맞고 쓰러진 사내의 환영에서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연상한다. 그러면서 서술한 ㉔[→ ‘썩부쟁이와 엉겅퀴꽃’]은 아버지가 매장된 곳에 피었을지도 모를 꽃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㉔에서 연상되는 상황[→ 아버지의 죽음]이 현실이 될 경우에 ㉔에 투영된 염원[→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설명

- ① 날 수 있는 동물인 ㉔가 땅에 붙박인 식물인 ㉔에 비해 능동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㉔가 아버지의 부재라는, ‘나’와 ‘어머니’가 처한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㉔를 통해 암시될 뿐이다.
- ② ㉔를 ‘때가 되면’과 관련하여 시간에, ‘돌아’온다는 것과 관련하여 공간에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㉔ 역시 아버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상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간에 관여되어 있고, ‘머리맡’,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 등과 관련하여 공간에도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자신의 소망을 담아 하는 말 속에 제시된 ㉔가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㉞는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이 담긴 소재이며, ㉟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나'의 상상과 결부된 소재이다. 따라서 ㉞와 ㉟ 중 희망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㉞이다.
- ⑤ ㉞에는 기다림이라는, ㉟에는 죽음이라는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㉞와 ㉟를 통해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지문에서 '나'의 아버지가 이념과 관련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라는 서술과, '나'의 상상 속에서 '총성이 울렸고' 이에 그가 쓰러졌다는 서술 정도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죽음과 결부된 ㉟는 선지의 진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㉞는 이와 무관하다.

[31~34] (현대시) (가) 이기철, 「청산행」 / (나)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주목해야 할 작품(2025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AA

- (가)는 비교적 젊은 세대 시인의 연계 작품으로, (나)는 위 세대 시인의 비연계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시에서 대체로 (가)를 위 세대 시인의, (나)를 젊은 세대 시인의 작품으로 구성하던 작품 배열 순서가 뒤집어진 세트이다.
- 김현승은 흔히 「가을의 기도」, 「눈물」, 「플라타너스」 등의 작품으로 접해 왔던 시인인데, 그런 익숙한 작품 세계와는 이질적인 주제 의식을 담은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다. 그런 데다 34번 문항의 <보기>에 제시된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를'는 내용의 주제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낯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점이 문학 영역에서 해당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이유로 판단된다.



고난도 문항 해설 34번

❖ <보기> 설명

자연이 인간에게 안식을 준다고 인식되어 왔다는 진술은 (가)와 연결하여, 절대자가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는 진술은 (나)와 연결하여 작품을 해설하고 있다.

(가)의 화자	(나)의 화자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옴 ↓ 자연에 동화되어 감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를함 ↓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함

■ 정답 설명: ③

- 1) <보기>를 참고하면, (가)의 화자는 세속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상태이다. 청산에서 며칠 지내며 ‘발을 푸니’ 세속의 일상에서 보았을 때에는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라는 것은, 자연에서의 삶에 친숙해지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2)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자신의 생사가 ‘나는 나일 뿐’이라는 ‘나’의 인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지니게 된 화자에게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화자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차를 마시는 나’라는 사실뿐이다.
- 3) 그러므로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를 절대자에 대한 회의를 기반으로 한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 현실의 일들]에 근거하여 자신과 세계를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가)의 화자는 ‘인가를 내려다보’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찻술을 생각’하고 있다. ‘인가’는 세속의 일상적인 공간이므로, 이를 보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찻술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 화자의 심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자신이 ‘차를 마시는’ 행위를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한 것은, ‘나’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가 알고 있는 전부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므로,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보기>를 참고하면, (가)의 화자는 세속을 떠나 자연에 들어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속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연으로부터 안식을 느끼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길을 놓치고 /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이나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지는 ‘때까지’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소재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기>를 참고하면, (나)의 화자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 따라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시킴’에 의한 것이 아니며 들국화를 예쁘게 가꾼 것도 ‘누구의 손’이 아니라는 표현은, 존재에 대한 절대자의 관여를 부정함으로써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를 참고하면, (가)의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은 세속에 시달리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의미하며, 화자가 이러한 ‘것들과 함께 / 잠들고 싶다’고 한 것은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물은 물일 뿐’은 ‘물’이라는 대상을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경험적 사실로만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총평

화법과 작문의 난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소 어려웠다. 지문의 내용은 평이했지만 정보량이 많고 선지들이 까다롭게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선지를 읽고도 정답을 찾지 못해 지문을 다시 읽거나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을 것이다. 과거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의 난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가 선택과목 중 하나로 등장한 이후 언어와 매체와의 난도 조절을 위해 화법과 작문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다. 지문 구성은 ‘발표[→ 35~37번]’, ‘대화-안내문[→ 38~42번]’, ‘설득하는 글[→ 43~45번]’로, 화법과 작문에 자주 출제되던 세트들이 출제되었다. 물론 화법-작문 통합 세트에 ‘안내문’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지만, 이 역시 기존에 접해 왔던 ‘정보를 전달하는 글’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감 모의고사를 학습해 온 수험생들이라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문의 정보량이 많고 선지가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편, 화법과 작문에서의 EBS 교재 연계는 언제나 그랬듯 연계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을 보였다. ‘화법[→ 35~37번]’의 K-푸드나 ‘화법-작문 통합[→ 38~42번]’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 등 EBS 교재의 지문에 등장하는 소재가 출제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EBS 교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 자체보다는 각 세트에서 다루는 문항들을 위주로 그 패턴을 학습해 볼 것을 권한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7] 화법(발표) 김 양식의 두 가지 방법

화법 세트에 ‘발표’가 출제되었다. ‘발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형식이다. 지문의 주제는 최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김에 관한 것으로, 김을 양식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지문의 내용이나 문항의 수준이 평이해서 문제 풀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구성은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35번]’, 시각 자료 활용[→ 36번], 청중의 듣기 활동[→ 37번]으로, ‘발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유형들이다. ‘발표’는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연달아 출제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은 형식인 만큼, ‘발표’의 각 문항을 구성하는 선지들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요구된다.

[38~42] 화법-작문 통합(대화-안내문) 도서관 전파 식별 시스템 설치 및 새 단장 안내

‘대화 (가)’와 이 대화를 바탕으로 도서관원이 작성한 ‘초고 (나)’로 구성된 화법-작문 통합 세트이다. 이렇게 글쓰기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완성하는 형식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수험생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형식이다. 지문의 주제는 도서관에 새롭게 설치된 전파 식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독해하는데에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안내문’이라는 형식이 화법과 작문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내문’ 형식은 그동안 수험생들이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많이 접해 온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문항 역시 ‘대화 맥락 분석[→ 38번], 대화의 특정 부분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 39번], 대화가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 40번], 내용 조직 방법[→ 41번], 고쳐 쓰기를 위한 내용 점검[→ 42번]’으로, 통합 세트에서 자주 다루던 익숙한 유형들이 출제되었다. 그럼에도 42번 문항의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정답 선지의 선명도가 다소 떨어졌고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함정 선지가 존재해 둘 중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내야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고난도 문항 해설 42번

정답 설명 : ②

주어진 ‘점검 항목’에 따라 안내문인 (나)를 점검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점검 항목’의 ㉠은 글의 목적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②번 선지에는 (나)에 안내문을 쓴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글의 처음 부분에 목적을 기술하자는 점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처음 부분을 보면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라고 글을 쓴 목적이 이미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지의 점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경로 이탈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②번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지 못했는데, 이는 (나)의 처음 부분에 제시된 내용이 글의 목적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지문에서 글의 목적을 제시할 때에는 ‘~하기 위해서’와 같은 문구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글을 쓴 목적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런데 지문의 문장에는 이러한 문구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이를 그저 소개말 수준의 진술로 여겨 정답을 고를 때 다소의 주저함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오답인 ④번 선지의 점검 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되어 오답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오답 설명

- ① (나)에는 제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내문의 제목이 없으니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제목을 만들자는 ㉡의 점검 내용은 적절하다.
- ③ (나)의 ‘대출 가능 시간 확대’ 항목에는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되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대출 가능 시간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출 가능 시간을 명시적으로 밝혀 주자는 ㉢의 점검 내용은 적절하다.

- ④ (나)의 ‘대출 가능 시간 확대’ 항목의 마지막 문장에는, 도서관원이 앞으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대출 가능 시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소제목으로 포괄할 수 없는 문장을 삭제하자는 ㉠의 점검 내용은 적절하다. 다만, 책 읽기 좋은 환경에 대한 내용이 (가)의 대화에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나)의 ‘대출 가능 시간 확대’의 내용을, 대출 가능 시간을 확대해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흐름으로 이해한다면 해당 문장과 소제목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④번 선지를 정답으로 골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⑤ (나)의 ‘자가 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 항목은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추가하자는 ㉡의 점검 내용은 적절하다.

[43~45] 작문(설득하는 글)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활성화

작문 세트의 지문은 대부분 학생이 학교 신문이나 지역 신문, 교지에 게재한 ‘초고’의 형식을 띤다. 이번 시험도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역시 평이한 수준이어서 독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올해 작문 세트의 문항 구성은 이전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글쓰기 계획의 반영[→ 43번]’ 문항은 통상 작문 세트의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되던 유형인 데 반해, 대체로 단독 출제되던 유형인 ‘자료 활용 방안’이 ‘빈칸 내용 채우기’와 결합하여 44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화법-작문 통합 세트나 작문 세트에 반드시 등장하던 ‘고쳐 쓰기[→ 45번]’ 문항이 평이한 수준이었던 기존과 달리 난해하게 출제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이 항상 높았던 것은 ‘자료 활용 방안’ 문항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쳐 쓰기’ 문항에서의 오답률이 역대 최고로 높게 나왔다. 마지막 문항인 45번에 이처럼 난해한 문제가 배치될 경우 시간의 압박으로 당황하기 십상인데, 그럴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문항의 선지들이 묻는 지점을 지문에서 일일이 체크하며 차분하게 풀어 나가야 한다.



고난도 문항 해설 45번

■ 정답 설명: ②

‘초고’의 문단4에서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왜 중요한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관련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B]에는 그중 후자에 대한 해결책만 제시되어 있고, 전자에 대한 해결책은 ‘고쳐 쓴 글’의 첫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문단4에서 제기한 문제 중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 즉 교육 방안을 추가했다는 ②번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지자체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은 [B]의 둘째 문장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해당 문장을 추가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B]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되어 있고, 이는 '고쳐 쓴 글'의 셋째 문장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하지만 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은 내용은 남겨 두는 게 좋겠다는 것은 '친구 2'의 제안이므로, '친구 1'의 제안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은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라 [B]에 언급된 내용이고, '고쳐 쓴 글'에서 삭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은 '초고'의 문단2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 삭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해당 내용이 삭제된 이유는 문단2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01. 언어

▶ 총평

언어는 의미·담화론, 통사론, 음운론, 국어사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며, 형태론 영역을 단독으로 다루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교육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나,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 함께 출제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6] 의미·담화론

의미론과 담화론을 융합한 지문이다. 지칭어, 호칭어, 미지칭, 부정칭의 개념과 담화에서의 쓰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담화 맥락에서의 활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특히 형태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담화 맥락에 쓰인 문법 표현의 의미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정답 판별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출제 의도

- 1) 미지칭과 부정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품사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2) <보기>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 <보기> 설명

- 1) ○ 이 과일 한 상자에 ㉠ 얼마예요?
→ ‘얼마’는 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도를 이룰 때 쓰는 말이다. 예문에서도 알지 못하는 가격을 이르고 있으므로, 미지칭에 해당한다. 또한 ‘예요[→ 서술격 조사 ‘이-’에 종결 어미 ‘-예요’가 결합한 ‘이에요’의 준말]’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그 품사는 명사이다. 참고로, ‘얼마’가 부정칭으로 쓰이는 예로는 ‘얼마를 먹든 괜찮다.’ 정도를 들 수 있다.
- 2) ○ 그는 ㉡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 ‘무슨’은 사물을 특별히 정하여 지목하지 않고 이룰 때 쓰는 말이다. 예문에서도 불분명한 어떤 일을 이르고 있으므로, 부정칭에 해당한다. 또한 명사 ‘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그 품사는 관형사이다. 참고로, ‘무슨’이 미지칭으로 쓰이는 예로는 ‘이게 무슨 냄새지?’ 정도를 들 수 있다.

3) ○ 지리산은 ㉔ 언제 보아도 아름답겠지?

→ ‘언제’는 때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문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불분명한 어떤 때를 이르고 있으므로, 부정칭에 해당한다. 또한 용언 ‘보아도’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그 품사는 부사이다. 참고로, ‘언제’가 미지칭으로 쓰이는 예로는 ‘휴가가 언제지?’ 정도를 들 수 있다.

4) ○ 밖에 ㉕ 어떤 분이 오셨어요?

→ 해당 문장에서의 ‘어떤’은 맥락에 따라 미지칭과 부정칭 모두 가능하다. 가령 밖에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궁금한 맥락에서 쓰인 ‘어떤’은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에 해당한다. 반면, 밖에 누군가 온 것인지의 여부가 궁금한 맥락에서 쓰인 ‘어떤’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이 의존 명사 ‘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그 품사는 관형사이다.

정답 설명 : ④

㉔와 ㉕는 모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이고, 품사는 각각 관형사와 부사로 서로 다르다[<보기>-2), 3)].

오답 설명

① ㉔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㉕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보기>-1), 2)].

② ㉔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㉕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보기>-1), 3)].

③ ㉔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㉕는 맥락에 따라 알지 못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도 있는 관형사이다[<보기>-1), 4)].

⑤ ㉔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는 관형사이고, ㉕는 맥락에 따라 알지 못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도 있는 관형사이다[<보기>-2), 4)].



고난도 문항 해설 36번

출제 의도

- 1) 지칭어와 호칭어를 이해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2) 제시된 대화 내용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정답 설명 : ㉕

㉕[→ ‘여보세요.’]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기에 적절한 호칭어가 아니다. 제시된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빠’가 ‘이모’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곧 특수한 의도에서 ㉕의 호칭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설명

- ① 대화 맥락상 ㉠[→ ‘엄마’]와 ㉡[→ ‘김수진 님’]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는 지칭어가 아닌 호칭어에 해당한다.
- ② ㉣[→ ‘이모’]는 지칭어가 ‘이모’라는 명사로 실현되었고, ㉤[→ ‘이모님’]는 지칭어가 명사 ‘이모’에 접미사 ‘-님’이 결합된 복합적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쓰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 ‘김수진 님’] 자체는 공식적인 호칭어이지만, 제시된 대화 상황은 격식적인 대화 상황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공식 관계도 아니다. 대화 맥락상 ㉡는 ‘아빠’가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호칭어일 뿐이다.
- ④ 대화 맥락상 ㉣[→ ‘이모’]와 ㉤[→ ‘김 선생님’]은 모두 ‘이모’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시된 대화 상황은 공식 관계에 있는 격식적인 상황이 아니며, ㉤는 호칭어가 아닌 지칭어로 쓰였다.

[37] 통사론

서술어의 필수 성분과 자릿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그 내용과 형식은 이전 출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꼼꼼하게 따지고 문장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답 판별의 핵심 요소였다.

[38] 음운론

음운 변동의 종류와 그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항의 형식이 낯설지 않고 제시된 발음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확인하는 과정의 난도가 높지 않아 다소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9] 국어사

차자 표기의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제재이므로 낯설었을 수는 있지만, 제시된 내용을 자료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문항이므로 난도는 높지 않았다.

02. 매체

▶ 총평

올해 6월 모의평가의 매체는 평이했으며,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되었다. 매체는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과목으로 묶여 치러지는 만큼 오답률이 항상 높은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다. 이번 시험도 이러한 출제 기조에 맞춰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매체는 올해로 출제 4년차인데, 매 평가원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보여 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올드 미디어는 물론, 온라인 채팅, 홈페이지, 앱, 1인 방송과 같은 뉴 미디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작년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각각 출제된 바 있는 ‘텔레비전 뉴스’와 ‘온라인 화상 회의’가 다시 출제되어, 매체 자료 자체에 대한 수험생들의 생소함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체에서 항상 다뤄지는 ‘매체 자료의 특성[→ 40, 44번],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41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 42번], 매체 자료의 생산[→ 43, 45번]’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문제 풀이 과정보다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매체에서의 EBS 교재 연계는 대체로 그랬듯 연계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을 보였다. EBS 교재의 지문에 등장하는 소재가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지문에 연관 소재로 등장하는 정도이므로, EBS 교재를 통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파악해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서 평가원 기출을 통해 그동안 출제되었던 각각의 매체 자료에 등장한 선지 유형들을 꾸준히 학습해 두는 것이 실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40~43] 언어-매체 통합(텔레비전 뉴스) 독도 바다사자 복원

언어-매체 통합 세트에서는 재작년 6월 모의평가와 매우 유사한 형식의 ‘텔레비전 뉴스’가 출제되었다. 기본적으로 지문에 텔레비전 뉴스의 장면이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 ‘텔레비전 뉴스’라는 매체의 특성, 뉴스의 자막 활용 방식, 이미지 또는 영상 활용 방식, 인터뷰 화면의 활용 방식, 매체 자료 생산 방식 등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매체 자료의 특성[→ 40번],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41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 42번], 매체 자료의 생산[→ 43번]’ 등 지금까지 평가원 시험에서 한 번 이상 나왔던 유형들이 출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나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이를 학습해 두었다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44~45] 매체(온라인 화상 회의) 졸업 앨범 앱의 시안 제작

매체 세트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바 있는 ‘온라인 화상 회의’가 출제되었다. 수능 문제와 다른 부분이라면 ‘귓속말’ 기능과 ‘소회의실’ 기능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기능이 새롭기는 하지만, ‘귓속말’은 ‘1:1 채팅’이라는 점이 문자 언어로 제시되어 있고, ‘소회의실’은 참석자를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각각 회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제시된 화상 회의 화면 이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맥락을 잘 파악했다면 독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지문의 후반부에 생산하기로 한 ‘졸업 앨범 앱’의 메뉴와 기능이 10개 이상 등장하면서 각 기능이 무엇이고 어떤 메뉴의 하위에 속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웠을 수 있다. 하지만 ‘화상 회의’라는 뉴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지문에서 학생들이 주고받는 앱 제작 계획을 꼼꼼히 파악했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문항 해설 45번

정답 설명: ㉔

지문에 제시된 ‘은준’의 발언에 따르면, 앱에서 ‘쪽지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쪽지를 보내면 수신자의 휴대 전화로 알림이 가게 된다. 즉, ㉔[→ ‘쪽지 보내기’ 버튼]의 기능을 사용하여 쪽지를 보내면 수신자의 휴대 전화에 알림이 가기 때문에 수신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오답 설명

- ① 지문에 제시된 ‘서형’의 설명에 따르면, ㉑[→ ‘학교 누리집 바로 가기’ 버튼]를 누르면 학교 누리집 페이지로 연결된다. 즉, 앱을 이용하다가 학교 누리집에 접속하고 싶으면 ㉑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 ② 지문에 제시된 ‘은준’과 ‘윤하’의 대화에 따르면, ㉒[→ ‘나의 방’ 메뉴]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 주소를 자신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윤하’의 설명과 문항에 제시된 이미지를 참고하면, ‘친구 찾기’ 메뉴에서 친구의 이름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에서 해당 친구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친구가 ㉒에 입력해 둔 계정 주소를 통해 해당 계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지문에 제시된 ‘지현’의 발언에 따르면, ㉓[→ ‘나의 서재’ 메뉴]는 본인이 쓴, 간직하고 싶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중에 자신이 썼던 글을 ㉓에 올려 저장해 두면 나중에 다시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④ 지문에 제시된 ‘윤하’와 ‘민진’의 대화에 따르면, ㉕[→ ‘행사 사진’ 메뉴]에는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진을 볼 수 있는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이 추가된다. 그러므로 학교 행사들을 추억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여 ㉕에서 행사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다.

III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이감의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독서론 [1~3]	여러 글 읽기	-	-
사회 [4~7]	과두제적 경영	수능특강 286쪽 (이감 중요도 C)	-
과학·기술 [8~11]	에틸렌의 중합 과정	수능특강 307쪽 (이감 중요도 B)	2024 간쓸개 시즌2 5차 2024 간쓸개 시즌2 6차 2024 간쓸개 시즌3 1차
인문 통합 [12~17]	에이어의 정의주의에 대한 비판	수능특강 283쪽 (이감 중요도 AA)	2024 이감 시즌3 3차

문학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작자 미상, 「이대봉전」	수능특강 139쪽 (이감 중요도 A)	2024 이감 ON 6차 2024 강대 1차 2024 간쓸개 시즌2 2차 2024 간쓸개 예센설 02
고전시가 + 수필 [22~26]	(가) 작자 미상, 「우부가」 (나) 성현, 「타농설」	수능특강 71쪽 (이감 중요도 C) 비연계	-
현대소설 [27~30]	임철우, 「아버지의 땅」	수능특강 292쪽 (이감 중요도 A)	2024 간쓸개 시즌2 5차
현대시 [31~34]	(가) 이기철, 「청산행」 (나)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수능특강 265쪽 (이감 중요도 AA) 비연계	2024 이감 시즌2 2차 2024 이감 ON 4차 2024 간쓸개 시즌2 1차 2024 간쓸개 예센설 02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김 양식의 두 가지 방법 (발표)	수능특강 10쪽	2024 이감 시즌2 1차 2024 이감 시즌3 1차 2024 이감 ON 3차, 6차 2024 강대 1차 2024 화법과 작문 N제
화법 - 작문 통합 [38~42]	도서관 전파 식별 시스템 설치 및 새 단장 안내 (대화 - 안내문)	수능특강 54쪽	2024 이감 시즌2 1차 2024 이감 시즌3 1차, 2차 2024 이감 ON 3차, 5차 2024 화법과 작문 N제
작문 [43~45]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활성화 (설득하는 글)	비연계	2024 이감 시즌2 2차 2024 이감 시즌3 3차 2024 이감 ON 4차, 6차 2024 강대 1차 2024 화법과 작문 N제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의미·담화론 [35~36]	지칭어와 호칭어,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분	수능특강 83쪽 수능특강 103쪽	2024 이감 시즌3 4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통사론 [37]	서술어의 자릿수	수능특강 71쪽	2024 이감 시즌2 1차 2024 이감 ON 3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음운론 [38]	음운 변동의 조건과 순서	수능특강 237쪽	2024 이감 시즌2 1차 2024 이감 시즌3 1차 2024 이감 ON 3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국어사 [39]	차자 표기 방식	비연계	-
언어 - 매체 통합 [40~43]	독도 바다사자 복원 (텔레비전 뉴스)	수능특강 197쪽 (토종 여우 복원)	2024 이감 시즌3 2차 2024 이감 ON 5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매체 [44~45]	졸업 앨범 앱의 시안 제작 (온라인 화상 회의)	비연계	2024 이감 시즌2 2차 2024 이감 시즌3 3차, 4차 2024 이감 ON 4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이감 인사이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3, 3층
T 02-567-9507 F 02-567-9509 www.yigam.co.kr